

당뇨병은 유전이다?

당뇨병은 유전일까? 당뇨병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가정에서는 걱정되고, 중요한 궁금증일 것이다. 어떤 가정에서는 당뇨병에 대한 가족력이 뚜렷이 나타나는 가하면, 또 어떤 가정에서는 당뇨병이 유전이 아닌 것도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족력은 분명 있다. 하지만 그 가족력이 유전적일 수도 있고, 환경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정답이다.

당뇨병, 유전적 특징 복잡해

실제로 당뇨병은 유전적 성향이 있는 질병이다. 현재 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뇨병의 종류에 따라서 유전성의 강도가 조금씩 다른데, 이러한 유전적 특성을 전달하는 방법은 유전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유전자란 세포핵 속의 염색체라고 하는 구조물에 군데 군데 위치하고 있으며 마치 설계도면과 같아 부모의 모습이나 성격, 질병의 발생을 지령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정보는 쌍을 이루고 있는데 양부모로부터 한쪽 씩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어느 한 쪽 유전자만을 반영한 것인지, 두 쌍 모두 반영한 것인지에 따라 우성, 열성을 결정하게 되지만 대개 어떤 특정한 유전적 특징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협동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당뇨병의 유전성

일반적으로 제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남자의 자녀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1.7%이다. 또한 제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25세 이전에 아기를 낳았다면 자녀의 당뇨병 위험은 4%, 25세 이후에 아기를 낳았다

면 자녀의 당뇨병 위험은 1%이며, 부모가 모두 제 1형 당뇨병환자라면 그 위험은 10~25%가 된다.

이에 비해 50세 이전에 제 2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그 자녀의 당뇨병 발병률은 14.29%, 50세 이후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그 자녀는 7.69%의 위험률을 가진다. 더욱이 어머니가 제 2형 당뇨병환자일 경우에는 자녀의 당뇨병 발병 위험도는 더 높아지고, 만약 부모 모두가 제 2형 당뇨병환자라면 자녀의 발병 가능성은 50%로 급상승한다.

당뇨, 가족의 동일한 생활습관으로 발생하는 것!

위의 통계는 조사에 따른 어림의 수치에 불과하고 실제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당뇨병은 유전적 소인이 일부 있기는 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뇨병은 생활습관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더 강한 영향력을 보이기 때문에 유전성에 대한 자세한 학문적 논의보다는 가족의 비슷한 생활습관으로 한 가족에게서 어떤 질병이 동일하게 발병한다는 것에 집중성을 두어야 할 것이다.

비만한 부모 밑에 비만한 자녀가 있는 것은 부모의 절제하지 않는 식습관과 운동을 하지 않는 생활태도를 자녀가 보고 배우으로써 자녀 또한 비만해 지는 것이며, 짠 음식을 즐겨먹는 가족에게서 고혈압의 발병률이 높은 것처럼 당뇨도 마찬가지이므로 유전을 걱정하기 보다는 생활환경과 습관 개선을 고려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

부모에게 당뇨병이 있다면 그 자식들에게 당뇨병의 예방법을 조기에 실시해 유전적인 결함을 환경적인 노력으로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